

제6회 포천연극제 개최

11월24일 대진대학교 예술관 소극장



(사)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는 오는 24일 대진대학교 예술관 소극장에서 제6회 포천연극제를 개최한다.

(사)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희용)는 오는 24일 대진대학교 예술관 소극장에서 제6회 포천연극제를 개최한다.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릴레이로 공연무대를 마련하며 개막식은 오후 2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극제에는 ▶대진대학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경북중학교 ▶왕방초등학교 ▶관인초등학교 팀등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대학의 학문적 예술과 지역의 독특한

토종연극의 뜻 깊은 만남으로 새롭게 기획됐다.

이번 연극제는 준비한 이희용 지부장은 "포천연극제는 경기도에서 그 유래가 없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연극의 축제이고 한 해 동안에 포천에서 제작된 대표적인 연극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해마다 포천에서 열고 있는 알찬 연극 축제"라고 밝혔다.

이번 연극제는 ▶12:50 ~ 13:40 왕방초등학교 ▶14:00 ~ 14:10 개막식 ▶14:10 ~ 15:30 포천중문의과대학교 ▶15:40 ~ 16:20 경북중학교 ▶16:30 ~ 17:30 관인초등학교 ▶18:00 ~ 19:30 대진대학교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연극제는 올 한 해 동안의 연극을 총 망라하여 포천연극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대진대학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포천예총, 포천문화원, 포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그린자동차 운전전문학원, 포천신문사가 후원해 마련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문화재단 개선안 발표

지원금 한도액 상승, 모니터링 환류 시스템구축 등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송태호)이 주관하는 '문예진흥지원금 공모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지원금 한도액 상승을 비롯 휴식년제 완화, 모니터링 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 등 대폭 바뀐다.

재단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5 문예진흥지원금 공모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문학, 음악, 연극 등 장르별 지원에 따른 일반·특별공모지원에서 목표중심에 따라 '기초예술 창작·발표 활동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연·전시·출판은 물론 세미나, 회의, 워크숍, 평론, 강좌 등 문화예술의 질적향상을 위한 사업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총지원금도 20억에서 22억으로 2억원 증액했고, 지원한도액은 사업비 50%에서 70%로 높혀 2천만원 사업의 경우 최대 1천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업지원을 받은 단체 및 개인에게 일정기간 지원을 제한하는 '휴식년제'도 완화했다. 지원받은 개인은 격년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단에 사업 모니터링을 신청한 단체(개인)는 우수평가를 받을 경우 휴식년제에서 제외된다.

여기다 '단체(개인) 1차 지원 원칙'에서 지원영역과 유형을 달리한 사업에 대해 1개 단체(개인)가 서로 다른 기간에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심사과정도 보다 체계화된다. 1차 심의(30%)는 '행정 및 지원목표의식'로써 지원목표 적합성과 공모지원 원칙위배 여부에 대해 재단 전문위원이 심의하며, 2차 심의(70%)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문화예술적 기여도 등의 질적평가에 대해 장르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3차 인터뷰 심사는 심의위원 전원합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하며, 이때 시민들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수원(12월1일)과 의정부(29일)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단은 내년 2월초 사업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문화칼럼

아름다운 포천 그리고 문화예술



이 경 진

진산미술관장/큐레이터

바야흐로 문화집대(?)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공연터켓이나 소품의 미술작품을 선물하는 문화집대는 고객이나 직원뿐만 아니라 바이어와 거래처 등 영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술이나 향락문화로 상대방을 접대하던 저급시류에서 접대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상호간의 품위를 한 차원 높이면서 뜻한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고품격의 접대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접대문화에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집에 그림 한두점 걸려있지 않은 집이 없고, 전시나 문화예술 공연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게도 우리 포천지역은 아직 그 시류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월아트홀이 개관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고, 또한 그 곳에서 수많은 전시회가 있었습니다만 작품이 팔렸던가 아니면 문외가 없었다던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역에서 보기도문 훌륭한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심여명 정도 관람객이 전부라 부끄러움에 앞서 투자된 전시비용을 고려한다면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단편적이고 성급한 판단 일지 모르지만 포천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이 미흡하고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아 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그래도 우리 포천이 보기 드물게 최고의 전시문화 시설을 갖추는 것에 비하면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문화예술도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적당히 균형을 이루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수요가 없다면 그야말로 작가는 창작의 불필요성과 더불어 의욕을 잃게 될 것이고, 더불어 좋은 작가나 걸작을 기대할 수 없었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

지금쯤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화란 말 그대로 그 지역 사람들이 뿌리내리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고장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며, 그것은 무말할 필요 없이 안정된 직장과 함께 균등한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누릴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문화예술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지역 우리지역민들을 위한 전시회나 공연임에도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포천 시민들만의 독특한 지방문화를 꽃피우려면 우선 작은 일부터 실천부터 해야 합니다. 이 지역 출신이나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작가들이 아름다운 포천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고 그들 나름대로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애써 마련한 문화예술의 장에 열렬한 성원과 더불어 지금의 접대문화를 접목시킬 때가 왔습니다. 접대나 감사의 표시를 공연터켓이나 소품의 미술작품으로 대신하면 어떨겠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 점에서 문화정책도 교육정책 못지않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확실한 목표를 세워 실천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할 때, 산자수려한 포천에 담담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창조적이고 독특한 그 누구도 흉내 내거나 넘볼 수 없는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참된 가치는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직접 겪지 못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체험을 예술과 문화 활동을 통해 얻어지도록 하면서 그들의 문화예술적 지평을 한층 넓혀 나갈 때, 문화예술의 참된 가치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포천에서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앞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전심전력하며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포천시민들도 질 높은 문화예술을 좀더 가까이에서 접하고 중요하게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독창적이고 고급스런 문화예술을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기꺼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문화예술을 늘 사랑하고 즐기는 일등 포천, 일등 포천시민이 되도록 우리 함께 정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관심 부족

전시회·공연 적극 참여 필요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16)

포천의 문화재(3)



포천의 문화재(1)(2)는 포천이야기(42)(43)을 통해 소개한 바 있으나 매장문화재(분묘나 지하에 매장되었다가 발견된 문화재)를 소개할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No1은 「철술」으로 조선시대 것으로 1966년 6월 1일 송기남씨가 영종면 성동리 산 45-1에서 발견하였으며 No2는 「청동범종」으로 고려조 것으로 1973 강성만씨가 관인면 중리 904(신흥사지)에서 발견하였고 No3는 「청자접시」, 「청자대접」, 「청동바리」, 「청동수저」 등 각 1점씩인데 운지두씨가 1977년 6월 30일 소흘읍 무봉리 산76번지에서 발견하였으며 No4는 「백자병」, 「잡유병」 등 각 1점

데 조선조 것으로 1977년 7월 2일 내촌면 진목리 810번지에서 발견하였다.

또, No6로 「굽다리인화부늬항아리」, 「굽다리큰항아리」 등 각 1점으로 1978년 9월 8일 일동면 유동리에서 유석철씨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통일신라 유물이다.

No6은 「청동큰합」, 「청동수저」, 「백자접시」, 「백자작은병」 등 각 1점으로 1981년 8월 25일 이정기씨가 이동면 잠암리 산 120-2에서 발견하였는데 조선시대 것이다. No7은 「청동사자인장」, 「백자병」 등 각 1점인데 조선시대 것으로 1982년 4월 10일 신북면 삼상당리 산72에서 권두석씨에 의해 발견되었다. No8은 「돌도끼」 1점

으로 청동기 시대 것(신석기?)으로 1983년 1월 10일 포천 자작리 166-5에서 이진수씨에 의해 발견되었다.

No9는 「토기항아리」, 「백자완」, 「토기장군항아리」, 「철못」(12점) 등인데 조선조 것으로 1984년 4월 30일 유정수씨에 의해 관인면 사정리 산 20에서 발견되었다. No10은 「청자접시」 3점으로 고려조 것인데 1984년 11월 12일 오중석씨에 의해 가산면 금현리 3리 산45에서 발견되었다.

No11은 「마패」로 1985년 1월 28일 김각용씨에 의해 군내면 구울리에 발견되었는데 조선조 것이다. No12는 「청동곰바리」, 「백자접시」, 「백자완」, 「흑유항아리」, 「청동수저」 등 각 1점으로 조선조 것인데 1985년 1월

28일 강범두씨에 의해 신북면 계류리에서 발견되었고 No13은 「돌도끼」로 청동기(신석기?)시대 것으로 1985년 10월 3일 서문봉씨에 의해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견되었으며 No14는 역시 「돌도끼」로 청동기(신석기?)것인데 1992년 12월 25일 이상협씨에 의해 신북면 만세교리에서 발견되었다. No15는 「백자표형병」으로 조선조 것인데 1992년 12월 25일 정춘식씨에 의해 소흘읍 동교리 산53에서 발견되었으며 끝으로 No16은 「깊은바리무문토기」로 1994년 4월 19일 장명수씨에 의해 영종면 영승리에서 발견되었으며 청동기 것이다.

이우형 교수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No는 발견된 순서이고 큰 의미는 없다. 우리 고향 포천에는 이와 같이 신석기 시대 이후, 역사를 이룩한 문화민족이 문명사회를 이룩하며 살았다는 증거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다른 문화재와 함께 진열 공개되거나 「도록」(圖錄)되어 후세교육 자료로 영원하였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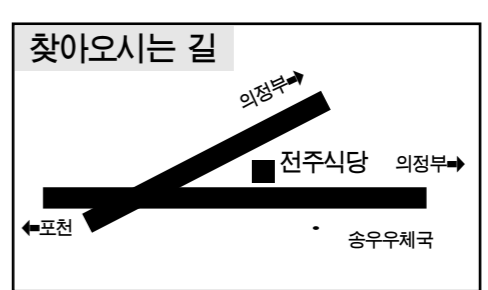
필자연락처 02-932-2434

맛의 차별화를 선언한 **한식전문 전주식당** 이 정성을 다한 새로운 메뉴를 고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립니다.



- 아구찜/탕(대 35,000 중 25,000)
 - 꽃게찜/탕(대 55,000 중 35,000)
 - 해물탕(대 40,000 중 30,000)
 - 낙곱전골(대 30,000 중 20,000)
 - 낙지전골(대 30,000 중 20,000)
 - 제주갈치조림 (대 40,000 중 30,000 소 20,000)
 - 가마솥정식백반 7,000
 - 부대찌개 5,000
 - 삼겹살 6,000
- ◆백반 가격인하 8,000 → 5,000

<특선메뉴>
해물탕/꽃게찜·탕/제주갈치조림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8/전화 : 031-542-3912/대표 : 김 형 준